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발병 역학조사 촉구

익산 시민단체, “도 질병본부와 협의, 발생 원인 밝혀야”

익산 좋은정치시민넷은 2일 암 집단 발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함라면 장점 마을에 대한 역학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익산 좋은정치시민넷은 성명서를 통해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집단 암이 발생하여 주민 11명이 사망하고 4명이 투병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통탄하지 않을수가 없다”며 “암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을 보면서 관련기관들이 무엇을 했는지 알수가 없다”며 분노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하는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정 통보에 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할 역학 조사 대상이 아니고 환경부와 협의해 역학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 결정은 전형적인 업무 떠넘기기로 지역주민

의 고통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분노했다. 또한 이들은 “주민들의 집단 암 발생 원인을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소극적인 태도는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성토했다.

이들러 “남원 내기마을의 경우 인근 아스콘공장조로 인해 집단 암이 발생했다는 주장에 질병관리본부가 역학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음에도 장점마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환경문제를 다루는 부서에서 질병관련 역학조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전북도의 적극적인 태도를 촉구한다”며 “시민은 전북도가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암 발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한미 연합훈련 중단하라” 2일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반도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 키리졸브·독수리 군사훈련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수상품전 ‘성료’

3일간 9개 업체 참여 5700여 만원 매출 올려

개성공단 폐쇄로 1년 넘게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을 돕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이 마련했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우수상품 특별 판매전’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최근 1층 로비에서 진행한 특별판매전에서 9개 참여업체가 총 5,7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특관 행사를 벌였던 주요 시·도청의 매출액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로 참여업체들에게 큰 힘이 됐다는 평가다.

시간 총 1,529명이 이번 특관 행사에 참여했으며 1인당 평균 3만 7,300원 어치를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일별 매출액은 첫날인 23일 1,870여만원, 둘째날인 23일 2,274만6,000원, 셋째날인 24일

1,557만5,000원을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로만순(시계)이 1,149만7,000원 어치를 팔아 가장 많은 매출을 올렸다. 이어 스나인(기능성 속옷) 983만원, 트립스포츠(등산 의류) 959만원, △석촌도자기(주방용품) 711만원, △성화물산(양말) 576만원, △베이비누리(아동내의) 412만원, △알디엔웨이(등산화) 400여만원, △성실섬유(아동내의) 263만여원, △렉시(양말) 247만원 등이 다.

이번 특별판매전은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해 연말 확대간부회의에서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로 입주업체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주기업들의 제품을 판매하는 방안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해 이루어졌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 아파트 입주민간 이웃사촌 만든다

공동 주택 입주민들간 소통·화합 위해

전주시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공동체 중심의 온두레공동체 사업에 이어 공동주택 입주민들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아파트공동체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시는 오는 8일과 9일 이틀간 완산·덕진구청 강당에서 열리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스스로 제안한 사업을 추진하는 ‘아파트공동체 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주시가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2020년까지 4년간 총 2억 여원이 투입된다.

시는 사업설명회와 예비학교 운영 등의 절차를 거쳐 두 과정 모두 참여한 아파트공동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계획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시는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는 총 8개 아파트공동체를 선정할 후, 향후 단계적으로 지원범위를 넓혀 공동체 사업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아파트공동체 사업을 통해 개인에서 이웃, 그리고 마을

로 확산되는 다양한 공동체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동주택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통해 주민들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키로 했다.

또한, 시는 아파트공동체 지원 사업 외에도 선정된 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체 역량강화 및 주민 간 화합도모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과 흡연으로 인한 갈등 등 주거형태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체육진흥시설 입장료 빼돌린 완주군 공무원 2명 형사 입건

전북 완주경찰서는 2일 체육진흥시설 입장료와 대관료를 빼돌린 완주군 공무원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조사에 나섰다.

공무원 A씨(45)등 2명은 완주 용진읍 소재의 국민체육센터 입장료와 대관료 등 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대부분 입장료를 납부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전북도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김민근 기자

경찰 간부, 유부녀와 불륜 의혹

기혼 여성과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맺은 현직 경찰 간부가 경찰 감사를 받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일 유부녀와 불륜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경위를 감찰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 A경위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30대 유부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A경위는 “여성을 만난 것만 사실일 뿐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부부싸움에 끼여든 경찰관 폭행한 50대 실형

부부싸움에 끼여들었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운현판사는 2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4,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실형을 선고 받은 박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11시경 전북 전주시 소재

의 한 식당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소란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을 퍼붓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범으로 연행된 박씨는 파출소에 서도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날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아내

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을 하다 ‘싸움이 크게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에게 시비 경위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민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